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보성군, '4년간 AI 비발생 지역' 청정 이미지 지킨다

### 철새도래지 집중소독·입식 전 훈증소독 정책 등 차별화 시도



보성군은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AI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집중 소독 등 강력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생조류 분변에서 H5-H7형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AI 유입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군은 군청 소독차량 및 축협 공동방제단 방제 차량 7대를 동원하여 연말연시 동안 매일 2회 이상 독립만 철새도래지 및 벌교 영등 갯벌 습지에 대한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철새도래지 진출입로에 출입통제 입간판, 현수막 및 발판 소독조를 비치하여 일반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보성군은 농가 전담공무원 운영, 군 자체 오리 휴지기제 지원 사업 같은 상시 방역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모든 오리농가에 훈증소독을 실시한 후 입식을 허가하는 '입식 전 훈증소독 정책' 등 차별화된 차단방역 전략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AI 비발생 지역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 겨울에도 빈틈 없고 강력한 방역 정책·소독 이행·농가 교육 등 AI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영광군,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영광군은 7일부터 1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10회에 걸쳐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일부터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하여 PLS 다짐대회를 실시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핵심 실천사항을 교육하며, 기후 온난화 대비 및 주요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 상설교육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읍면별로 각 읍면사무소 회의실, 복지회관, 영평농협에서 실시되어 교육의 집중력을 높이고 농업인에게 한층 다가서는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과목은 친환경농업, 벼농사, 콩 육당동부 등 식량작물 분야와 고추 양파,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모시, 아열대작물 및 소독작물 분야와 전분과목과 공통과목으로 편성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 체계 개편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2019년 2월 고지분(2019년 1월 검침분)부터 대폭 개편된다.

상수도 요금 4개 업종 중 가정용을 비롯 욕탕용, 산업용 등 3개 업종의 누진구간을 없애고 단일요금체제로, 상업시설 등 일반용은 기존 상수도는 5구간, 하수도는 4구간을 3개 구간으로 축소

서 나오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누진구간이 서로 맞지 않아 요금체계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가정용 누진제를 없애 다자녀가구, 다세대가구, 요양시설 등 서민과 가족이 많은 가구

### 내달 고지분부터 가정용 단일요금체계 일반용 동일하게 3단계로 누진격차 완화

개편한다.

또한, 2020년부터 5년간 상수도요금은 2%, 하수도요금은 5%를 인상할 계획으로 시민부담도 최소화 했다.

이번 순천시의 상하수도요금체계를 대폭 개편은 그동안 하수도요금이 매년 45~50%씩 인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하나의 수도꼭지에

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적개편에서 상수도요금 징수됨을 신설해 상수도요금 고지제납자는 단수와 재산압류 조치로 납세 정 의실현과 공기업 건전제정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황경석 기자

## 광양시민 83% 시정운영 긍정적 평가

광양시는 2018년 각 부서별 대표 정책사업에 대한 시정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전반적인 시정운영 만족도가 83%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처에 의뢰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민 565명을 대상으로 69개 항목에 대한 현장변질과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포인트다.

시민들이 평가한 시정만족도는 83%로 최근 3년 연속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주민족도 역시 88.5%로 시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시정운영 및 광양시 거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높은 만족도가 아

동진화도시 건설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잘 살려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행정정보와 시정소식을 알게 되는 경로에 대한 답변으로는 '언론보도'라는 응답이 22.5%로 가장 높았으며, 시민의견수렴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시민의 64.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민선 6기 4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조사한 항목에서는 시민들은 민선 6기 가장 발전한 분야로 '어린이집, 출생지원 등 양육환경개선(20.0%)'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 '예산 1조원 달성'에 따른 시 재정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하고 다양한 역점시책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참여와 시민의식(2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시민 행복 도시 추진과제에 대한 질문에서는 '청년일자리(37.5%)'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투자유치'로 나타났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효과적 정책에서도 '청년일자리(41.1%)'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나 향후 청년일자리와 고용안정에 있어서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선 개선 분야로 '종합병원 등 의료 시설 확충(35%)'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안전과 시민건강을 위한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건강행태개선사업(3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김승호 기자

## 김병주 순천시부시장 취임식 대신 현장속으로...



2019년 신임 순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한 김병주 부시장이 2일 오후로 예정된 취임식을 마다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신임 김부시장은 전남도 일자리 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는 등 경제전문통으로 알려져 있어 순천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시장은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선7기의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이끌어가고자 하는 허석 시장님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첫 일정으로 현충정원 참배

에 이어 시무식 참석 후에 과소 및 읍면동 그리고 민생현장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주 부시장은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내실있는 시정운영으로 시민이 행복한 30만 자족도시 달성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추진의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자부담 0% 실현에 나서



###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광양시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부담 0% 실현에 나선다.

시는 최근 시 접견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양시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출연금액의 12배에 해당하는 24억 원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과 100% 전액보증을 실시하는 '광양시소상공인 신

신 특례 보증 업무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또 전남신용보증재단의 100% 전액보증서를 담보로 2년간 3천만 원까지 연 3%의 고정이율로 소상공인 융자금을 대출해주는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지원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2년간 연 3%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추가

로 부담하는 이자가 없게 된다.

특히 1백여 원 상당의 금융융자가 가능해져, 지역소상공인 4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은 지난 2일부터 가능하며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전남신용보증재단광양지점을 방문해 보증서 발급 후 광양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현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희천 NH농협은행광양시지부장 등은 지역민들로부터 사랑하는 금융권으로 변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